

## 2020년 국가7급 경제학 해설 - chopers

1.

[정답] ④

[해설]

$$\text{생산자잉여} : (60-20)*40/2=800$$

$$\text{소비자잉여} : (100-60)*40/2=800$$

∴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가 같다.

[팁]

보통 수요곡선 공급곡선은 직선으로 나오는데 이때 P축 절편값과 균형가격의 차이만 생각하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크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. 지금 수요곡선 P축 절편은 100, 공급곡선 P축 절편은 20이므로 균형가격 60과의 차이를 보면 40으로 같은 것을 알 수 있다. 균형거래량은 어차피 서로 같은 값을 취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차이만 같다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같을 수밖에 없게 된다. 선택지가 구체적인 값을 물어본 것이 아니면 굳이 계산을 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.

2.

[정답] ③

[해설]

생산기술이 규모수익불변의 특성을 가진다.

3.

[정답] ②

[해설]

IS곡선 기울기 :  $-(1-mpc)/b$  ( $mpc$  : 한계소비성향,  $b$  : 투자 이자율탄력성)

LM곡선 기울기 :  $k/h$  ( $k$  : 화폐보유성향,  $h$  : 화폐수요 이자율탄력성)

확장적 통화정책 :  $M$  증가  $\rightarrow M/P$  증가  $\rightarrow R$  하락  $\rightarrow I$  증가  $\rightarrow Y$  증가

따라서  $b$ 가 클수록,  $h$ 가 작을수록 정책 효과가 크다.

∴ IS곡선이 완만할수록 커진다. LM곡선이 완만할수록 작아진다.

[팁]

정책 효과는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급격한 곡선을 움직이는 것이 크다. 통화정책은 LM곡선을 이동시키므로 LM곡선이 급격할수록, IS곡선이 완만할수록 효과가 크다.

4.

[정답] ④

[해설]

실업자가 취업할 확률 :  $f$

취업자가 실직할 확률 :  $s$

균형에서는 취업하는 실업자 = 실직하는 취업자  $\rightarrow fU=s(E-U)$  ( $U$  : 실업자,  $E$  : 경제활동참가인구)

양쪽을  $E$ 로 나누면  $fu=s(1-u) \rightarrow u=s/(f+s)$

지금  $u=10\%$ ,  $s=2\%$  이므로  $f=18\%$

5.

[정답] ②

[해설]

$$\text{이윤식} : \pi = PQ - WL = P(200L - L^2) - 300L$$

이윤극대화 조건으로  $L$ 에 대해 미분하면  $200P - 2PL - 300 = 0$

이 식에  $L=50$ 을 대입해서 성립해야 하므로  $200P - 100P - 300 = 0 \rightarrow P = 3$

6.

[정답] ③

[해설]

장기균형조건 :  $P = LMC = LAC$

$$LMC = 6q^2 - 24q + 48, LAC = 2q^2 - 12q + 48 \text{이므로 } q = 3, P = 30$$

$$Q = 600 - 5P = 450 \text{이므로 } N = Q/q = 150$$

7.

[정답] ③

[해설]

지금 2년 만기 채권을 사고 나온 원리금으로 다시 1년 만기 채권을 사서 나온 원리금과 지금 3년 만기 채권을 사서 나온 원리금은 같아야 한다.

$$(1+0.05)^2(1+r) = (1+0.06)^3$$

$$2*5\% + r\% = 3*6\%$$

$$r = 8$$

8.

[정답] ④

[해설]

리카도 대등정리에 대한 설명이다. 현재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미래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.(현재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정부가 미래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더 세금을 걷게 되어 있다.) 이를 예상한 소비자들은 늘어난 현재 가치분소득을 소비에 쓰지 않고 전부 저축을 하게 되어 정책이 효과가 없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.

9.

[정답] ②

[해설]

노동자 1인당 특정 변수 변화율은 특정 변수 변화율에서 노동 변화율을 뺀 값이다.

성장회계식에서 양변에 노동 변화율을 빼주면

노동자 1인당 Y 변화율 = A 변화율 + (1/3)\*노동자 1인당 K 변화율

$$A \text{ 변화율} = 2\%$$

10.

[정답] ④

[해설]

국채 매입은 통화공급 증가

ㄱ. 이자율을 하락시킨다.

11.

[정답] ③

[해설]

ㄱ. 공공재는 배제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유자원과 유사하다.

ㄹ. 막히지 않는 유료도로는 요금제(클럽제)의 예라고 할 수 있다.

12.

[정답] ②

[해설]

ㄴ. 양국 간 기술수준 및 선호는 같다. (다른 것은 자원부존도뿐)

13.

[정답] ④

[해설]

ㄱ.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동이 있을 때 자동으로 발동되므로 정책이 나오기까지의 시차인 내부시차를 줄여줄 수 있다.

14.

[정답] ①

[해설]

공장이 여러 개일 때 각 공장에서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해야 한다.

$MC_1=2Q_1$ ,  $MC_2=6$ 으로 전체 생산량이 3이 될 때까지는 공장1만 돌리고 그 이후에는 공장2만 돌리는 것이 유리하다.

$$MR=200-2Q=200-2(Q_1+Q_2)=2Q_1=6$$

$$\therefore Q_1=3, Q_2=94$$

[팁]

직접 시간 잡고 풀 때는  $2Q_1=6$ 에서 바로 ①을 찍고 넘어갔다. 위에도 언급했듯이  $Q_1$ 은 3까지만 가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.

15.

[정답] ②

[해설]

황금률 조건 :  $MP_K = n+d$  ( $n$  : 인구증가율,  $d$  : 감가상각률)

그런데 지금  $0.125 > 0.1$ 이다.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황금률로 가기 위해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을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. 즉, 지금 자본은 황금률 수준 자본량보다 적다는 뜻이다.

16.

[정답] ②

[해설]

변동환율제도라고 하면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순간적으로 균형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과 달라지면서 그 차이로 인해 환율이 달라진다. 환율을 크게 하락시키려면 국내 이자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. 그래야 국내로 달려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기 때문이다.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이다.

17.

[정답] ③

[해설]

통화량=현금+요구불예금

본원통화=현금+지급준비금

통화승수=통화량/본원통화=(C+D)/(C+Z)=(C/D+1)/(C/D+Z/D)

C/D가 증가하면 위 식에서 Z/D가 1이 안되므로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커서 통화승수는 감소 한다. 따라서 통화량이 감소한다.

18.

[정답] ①

[해설]

X재 생산 기회비용을 보면  $A=3/6$ ,  $B=3/7$ 이므로 B가 더 적다. 따라서 B가 X재 비교우위로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한다. 이때 무역이 일어나려면 X재 1단위 가격이 Y재  $3/6$ 과  $3/7$  사이에 있어야 한다.

② A국은 Y재 생산에 B국은 X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.

③ A국은 Y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.

④ X재 생산 기회비용은 B국이 작다.

[팁]

문제가 옳은 것은?이라고 했는데 잘 보면 ②④는 의미상 같은 문장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.(선택지가 두 개가 옳을 수는 없으니까) ③은 그냥 눈으로 봐도 확인 가능하다.

19.

[정답] ②

[해설]

기업1이 먼저 가격을 매기고 기업2가 나중에 정한다고 했으므로 역진귀납에 따라 기업2부터 구한다.

$$\pi_2 = P_2 Q_2 = P_2(32 - P_2 + P_1)$$

$$\text{이윤극대화 조건으로 } P_2 \text{로 미분하면 } 32 - 2P_2 + P_1 = 0 \rightarrow P_2 = (32 + P_1)/2$$

$$\text{이제 기업1을 보면 } \pi_1 = P_1 Q_1 = P_1(20 - P_1 + P_2)$$

$$\text{이윤극대화 조건으로 } P_1 \text{로 미분하면 } 20 - 2P_1 + P_2 = 0 \rightarrow P_1 = (20 + P_2)/2$$

$$\text{여기에 처음 구했던 기업2의 반응식을 대입하면 } P_1 = 36, P_2 = 34$$

20.

[정답] ①

[해설]

이자율이 하락하면 기간 간 대체효과로 인해 현재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.